



매일 육계 1만수 씩 출하하는 농장

- 총 40만수 규모의 경원농장 -

취재부



△ 경원농장 김용봉 사장

자체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나온 초생추를 자신과 자신의 계열농장에서 길러 하루 1만수씩 브로일러를 출하하는 대단위 브로일러농장인 경원농장에서는 현재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에 제1농장, 회춘면에 제2농장, 주내면에 제3농장 등 3개 직영농장에 30만수의 닭과 친척, 전종업원들이 경영하는 5개농장에서 10여만수 총 40만수의 규모를 갖추고 브로일러 세미를 거의 매일 1만수씩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자금부담이 커 세미생산으로 자금 회전기간을 줄여〉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대닭(하이)을 출하하기에는 자금부담이 커 세미를 생산, 50일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경원농장 대표 김용봉씨는 종계에서 종란을 생산해 바로 자신의 농장에 입식 병아리 값을 절약하고 전체적인 자금부담을 감안 45일~50일까지 길러 1.3kg~1.4kg의 세미를 출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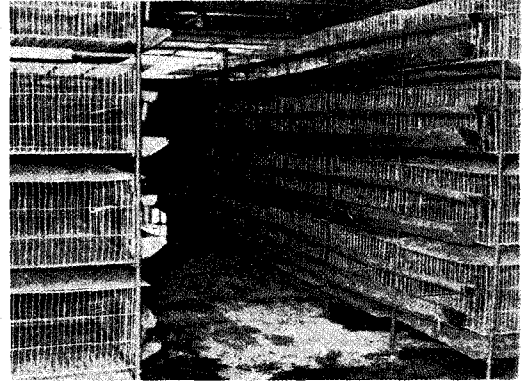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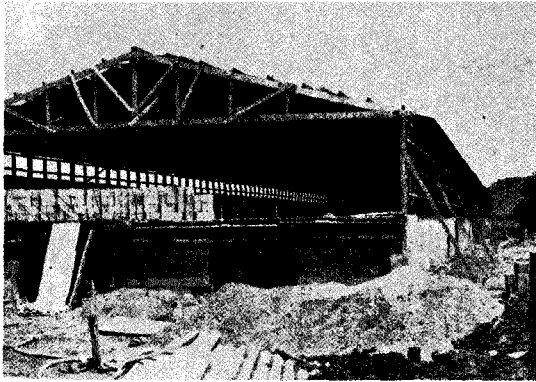
또 종업원 50명이 한정된

면적에서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전부 케이지를 이용해 밀사방지를 위해 여름철 및 겨울철 따로 따로 적정마리수를 케이지에 넣고 관리를 하며 생산비를 절감기 위해 전농장의 사료를 공동구매하고 상인의 횡포를 배제하여 공동출하를 실시해 판매의 애로보다는 가격하락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스레트영구계사에 초생추 때 부터 케이지육추를 실시하는 본농장에서의 사료효율은 평균2.1정도, (작년 6월 1.97 까지 기록) 현재 사료값을 kg당 240원정도로 계산하면 병아리값을 제외한 kg당 계속생산비는 550~580원 정도이니 자체 생산한 병아리 가격을 합산해도 생산비는 kg당 800원을 넘지않을 것이다.

〈전담소독조편성 철저한 소독실시〉

대군사육을 하다보니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질병대책,



△ 새로짓는 3천평 규모의 고상식 계사(좌). 출하 후 새로운 계군을 맞기전 양젓물로 닭아내고 소독을 한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우)

그래서 각 농장에서는 3명씩 소독담당조(組)를 편성, 이 소독조는 계속 소독만 실시한다. 일단 닭을 출하하면 계사내부를 온통 양젓물로 닭아낸 후 고압·고온청소기로 세척해 내고 완전히 건조시켜 다시 계군에 피해가 없는 소독약을 사용해 소독한 후 완전히 말리게 된다. 기간은 5~6일이 소요되고 계사내부 뿐만 아니라 농장주변도 양젓물로 청결하게 소독을 실시한다. 그래서 농장에는 소독약 값이 많이 지불되나 치료약값은 거의 들지 않는다.

이 모든 작업은 김용봉사장의 「노력의 대가로만이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신조로 이루어진다. 또 김사장은 「걸음 한걸음 더 걸는데 계란이 하나 더 떨어진다」며 이 모두가 닭의 결정체임을 강조한다.

기자는 바쁜중엔 시간을 내주신 김용봉사장과 함께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10년전 양계장 종업원에

서 현재 40만 대군을 거느리)

(기자) 대규모 농장을 일으키기에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언제부터 양계를 시작하셨고 발전은 어떻게 하셨습니다?

(김사장) 72년초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육계를 하는 농장에 고용원으로 들어가 양계와 인연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만원을 갖고 비닐하우스에서 양계를 시작했는데 결과가 나빴습니다. 그 이듬해 다시 병아리 800수를 외상으로 구입해 사료비가 없어서 팔라빛도 내고, 들에 나가 개구리를 잡아다 먹이고, 사료가게에 가서 새벽부터 사정 사정해 일도 도와주고 해서 사료 1~2루대 얻어다 먹여서 겨우 겨우 영계로 출하했습니다.

그후 74년도에는 세미를 2천수 출하해 30만원의 이익을 얻었고 계속 매월 2천수씩 출하해 1년동안 70만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계속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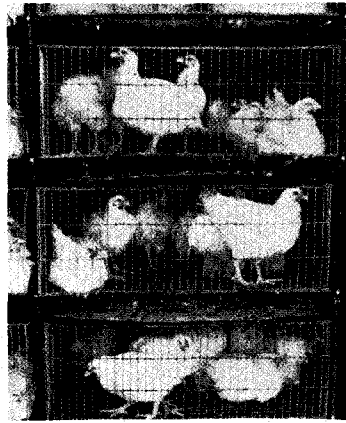
투자를 실시해 76년도에는 종계 1천3백수를 구입할 수 있었고 79년도에는 8,000수의 종계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78년에 와서는 종계를 대량 입추할 수 있는 급성장을 했고 총투자 3억의 농장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9년도에는 적자운영으로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80년도 8월이후 종계장-부화장-CC농장의 계열화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또 우리나라 브로일러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계열화 시스템으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는데 생산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장유통개선, 상권장악의 문제로 많은 연구필요〉

(김사장) 현재 매일 5시에 일어나 농장을 번개치기로 돌면(사실 제대로 돌면 하루종일 걸리지만) 10~11시에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봅니다.



△ 석탄산을 드럼으로 사용(좌), 철저한 소독(중), 밀사방지를 위해 적정수를 사육한다(우)

다. 농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사실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가가 없습니다. 현재 신계사 3천평(고상식계사)을 새로이 짓고 있는데 금년중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1 단계로 농장의 대단위 생산체제가 이루어지면, 2 단계로는 도계장시설 등에 관심을 갖고, 3 단계로 가맹점을 구성해 닭고기 전문판매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판매에 대한 자세한 시장 조사를 통해 한 사를 붙인 글 일한 닭고기 제품을 생산해서 생산자에게 호응받는 새로운 닭고기 제품을 보급시켰으면 합니다.

계열화에 대해서는 자금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 사업성에 대해 새로운 유통체

로 기존 닭상인과 경쟁을 하게되면 상관장악에 대한 후유증이 커 잡음없이 효율적인 시장유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자)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육계산업 안정은 생산자 스스로 노력하는 길뿐〉

(김사장) 생산자 스스로 힘을 길러서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애써 키워서 험값으로 상인에게 넘겨준다면 보람이 없습니다. 군소업자는 정부의 지원하에 조합을 구성해 뭉뚱뚱쳐야 합니다.

가격하락시 무조건 정부나 축협에서 수매를 해주기를 바

라지만 긴안목에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스스로 농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가격 하락시 수매비축은 농가도 수익보장이 되지 않으며 가격하락을 지속적으로 장기산 끌고가는 역효과로 작용합니다. 또 가격상승시 상승커브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육계산업안정을 위해 정부는 최고기 수입절제가 필요 합니다.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닭고기·돼지고기 생산을 지원해 외화소비를 줄이는 한편 국민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축산안정기금을 잘 이용해 값싼사료를 공급해 육계생산자들에게도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남 두 회〉

• **의식개혁 표어** •

**특권의식 안통하는
바른시민 바른사회**